



【뉴스】
GGM 위탁생산 캐스퍼
경차 활기, 일자리 확대
두 토끼
02



Economy

코스피	3140.51 (0.00)	코스닥	1046.12 (0.00)
금리 (미국 3년)	1.535 (+0.025)	환율 (원/달러)	1175.00 (+3.20) (17일)

고삐 풀린 집값, 반전은 없다... “추석 이후에도 불장”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 전망
수도권 매매가 한 달 간 1.29% ↑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록
가을 이사철 겹쳐 전셋값도 강세

추석 이후에도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절 직전에 매매와 전세 모두 매수세가 잠시나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급절벽과 매물 잠금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안정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과 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 8월 한 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1.29% 올라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매수심리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1로 전주(107.2)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은 4월 첫째 주 이 지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나 한 주 만에 반등해 4월 둘째 주부터 이번주까지 23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인 지난 15일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추석 이후 연말까지 서울의 부동산 시장 모습은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포함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전용 32㎡는 6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면적형은 지난달 6억7500만원에 팔렸다. 주공7단지 전용 59㎡ 9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2월 7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카드 승인액 7개월 연속 증가세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대비 7.2%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백화점 매출액도 14.4%나 늘었다고 밝혔다. **／뉴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아파트의 전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역별로 ▲노원(0.21%) ▲금천(0.20%) ▲구로(0.18%) ▲서대문(0.17%) ▲도봉(0.15%) ▲강서(0.13%) ▲강북(0.12%) ▲강동(0.11%) ▲양천(0.11%) 순으로 올랐다.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셈이다. 전세기도 ▲노원(0.22%) ▲서대문(0.17%) ▲영등포(0.14%) ▲광진(0.13%) ▲금천(0.13%) ▲동작(0.13%) ▲관악(0.10%) ▲도봉(0.10%) 순으로 올랐다.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셋값도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석 연휴 전 거래활동이 뜸해지면서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격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오히려 회복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스피드 공급 대책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가 높은 호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중국판 ‘리먼’ vs 예정된 ‘디폴트’

차이나 뉴스&리포트 형다그룹 사태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형다그룹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부채 규모만 350조원에 달하는 형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형다사태가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될 지다. 중국 내부에서는 형다사태가 정부가 통제 가능한 ‘질서있는 디폴트(orderly default)’를 예상하는 반면 국제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IB)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신용위험을 몰고올 ‘제2의 리먼브러더스’로 우려하고 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형다그룹의 부채규모는 1조9500위안, 한화 약 350조원 안팎이다. 올해 상반기 부실문제를 야기했던 화롱금융 부채의 8배에 달하며,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의 70%를 웃도는 거대한 규모다.

형다의 부채 위험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조치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 서 연초부터 제기돼 왔지만 국제신용평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시장 우려에

불을 붙였다. 신용위험이 고조되면서 모든 자금조달 경로가 사실상 막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조기상환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형다그룹 사태에 대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먼저 ‘대마불사’를 위해 중국정부가 직접 형다에 유동성과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형다그룹의 대규모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사우치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S&P의 매튜 차우와 크리스토퍼 입 애널리스트는 “중국정부의 직접적인 구제금융은 부동산 부문에서 디레버리징과 부실기업 정리를 강조해 온 정책방향에 배치된다”며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한 정부의 형다그룹 지원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정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질서한 디폴트와 영업활동 중단으로 형다가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

〈6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車 반도체 부족 2024년까지 간다”

자급자족에 대체재 개발 등 ‘발등의 불’

전문가들, 공급난 장기화 전망 현대차 자체개발 등 공급망 재편 자일링스, FPGA 대체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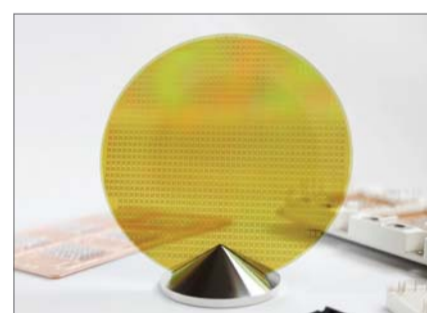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 오래 갈 조짐이다. 관련 업계는 공급망을 재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난이 수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열린 IAA모빌리티2021에서는 독일 다임러 올라 켈레니우스 CEO가 2023년에서야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헤르만 포드 유럽이사회 의장도 2024년까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최소한 1~2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도 여전하다. 차 반도체 공장들이 다수 자리해있는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멈추면서 공급난은 더 심각해졌다.

자동차 업계는 피해가 막심하다. 전



인피니언은 전장용 반도체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사진은 전장 반도체에 쓰이는 SiC 웨이퍼 **／인피니언**

세계 완성차 업계가 1년 가까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던 현대·기아차와 일본 토요타까지도 생산을 조절할 정도다.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르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대차가 일찌감치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선 가운데, GM이 반도체를 직접 공급받겠다고 나서는 등 반도체 수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이다. 8인치 웨이

퍼 중심이었던 공정을 12인치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 라인 증설 투자도 늘리는 추세다.

새로 차량용 반도체에 뛰어드는 업체도 잇따랐다. Arm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아키텍처인 ‘SOAFEE’를 공개했고, 한화시스템이 전장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했고, 국내 팹리스에서도 새로 전장용 반도체를 새로 내놓고 있다.

새로운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자일링스가 FPGA 차량용 반도체를 출시하며 대체재를 내놨고, 최소한의 부품으로 차량 제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칩 도입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차 반도체 구조적인 한계다. 차반도체는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성능 검증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투자와 개발 노력이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도 자동차 산업 특성상 수익률이 크게 낮아 투자를 망설이는 분위기도 여전히 크다.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문준용씨에 “국정감사 나와 해명해야” **／사진 뉴스스**
▲ 산업부 산하 23개 기관 직원 4명 중 1명에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아직은 정황 뿐... ‘尹연결고리’ 찾을까
▲ 이재명 “개발이익 두 배 만든 당사자” vs 이낙연 측 “집값 책임론 과도”



▲ 홍준표 “대장동·고발사주 모두 개인 비리” **／사진 뉴스스**
▲ 인권단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진상 규명 촉구” 유엔에 진정서